

## 서울대를 빛낸 사람들

### 美MIT大의 安敬源박사



『세미나를 주관해주시 교수님들 덕분에 임정의 성취의에 힘입어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고맙습니다』

세계 최초인 單원子(ONE ATOM)레이저를 개발, 90년세미나를 마치고 지난 17일 출국한 美

MIT大의 安敬源(83년 自然大卒)박사를 만나보았다.

부친의 학업장려와 남동생의 결단적 학업차원에서 귀족한 安敬源의 모교를 비롯 浦項고교, 高陽고교, 慶熙大, 과학기술

함으로써 전혀 장음이 없는 통신기술의 현명들을 가졌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개의 미립자에 의한 원자를 하나씩 單원子(ONE ATOM) 레이저가 빠져나오면서 미립자 선택하는 색깔과 방향이 빛이 나온다. 그래서 미립자에 관한 많은 빛이 감지된

### 세계최초 單원子레이저 개발 無잡음의 통신기술혁명 기대

다. 비유를한다면 일반화물이나 주조금속새는 물론(마려)에 한 양동이(원자)씩을 붓고 양동이를 버리는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계속되는 양동이(원자)를 잡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단

원자의 부류인 『네이처』 『사이언스』등 주요 학술지에 소개될 예정이다.

安敬源의 『재학 시절 전공수 과목중 홀로그래프 만드는 실험을 제가 속한 조가 처음으로 성공』 그때의 홀로그래프 실험을 영물수

의 계획을 피력했다.

『90년 美大卒』동문과 90년 졸업, 韓學대기 아들을 두고 있는 安敬源은 부인인 송영희씨, 보스톤 College의 Assistant Professor로 재직중이며 호평을 받았던 『기타』 자랑하기다. <한>